제 11 장 새로운 유학의 두 가지 길

1. 새로운 유학의 두 가지 경향, 주희(朱熹)와 왕수인(王守仁)

1) 주희, 월인천강(月印千江)의 형이상학을 완성하다.

◇ "이런 기(氣)가 있다면 도리는 곧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 이런 기(氣)가 없다면 도리(道理)는 있을 곳이 없게 된다. 이것은 마치 물속에 달이 있는 것과 같다. 이 물이 있기 때문에 하늘 위의 달을 비출 수 있으니, 만약 이 물이 없다면 결국 물에 비친 달도 없게 될 것이다.
(有這氣, 道理便隨在裏面, 無此氣, 則道理無安頓處. 如水中月, 須是有此水, 方映得那天上月, 若無此水, 終無此月也.『주자어류(朱子語類)』60:45)"

→ 하늘에 떠 있는 달과 천 개의 강에 비추는 달빛의 비유로 주희(朱熹, 1130-1200)는 세계와 인간을 사유한다. 여기서 천 개의 강은 구체적인 개별자를 가리키고, 여기에 비추어진 달빛은 개별자에 내재하는 본성[性]이나 이(理)를, 하늘에 떠 있는 하나의 달은 초월적인 이(理), 즉 태극(太極)을 가리킨다. 결국 내 마음의 본성을 자각하거나 혹은 외부 사물의 이(理)를 파악하면, 우리는 언젠가 이 세계의 모든 개별자들이 태극(太極)의 자손이라는 것을 직관하게 된다.
→ 주희에게서 기(氣)가 개별적 사물들을 가리킨다면(개별화의 원리), 도리(道理)나 이(理)는 개별적 사물들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원리를 가리킨다(통일의 원리). 이 점에서 주희의 이(理)와 기(氣) 개념은 플라톤의 형상과 질료 개념과 구별되는 것이다. 주희의 기(氣)가 구체적인 개별 사물을 가리킨다면, 플라톤에게서 있어 구체적인 개별 사물은 형상과 질료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사유되기 때문이다.

◇ 이 의자는 네 다리가 있어서 앉을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의자의 이(理)이다. 만약 다리 하나를 제거한다면 앉을 수가 없게 되는데, 이것은 곧 의자의 이(理)를 잃을 것이다. (…) 이런 부채도 이런 사물이니 곧 부채의 이(理)를 가지고 있다. 부채는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사용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형이상의 이(理)이다.
(且如這箇椅子有四隻脚, 可以坐, 此椅之理也. 若除去一隻脚, 坐不得, 便失其椅之理矣. (…) 且如這箇扇子, 此物也, 便有箇扇子底道理. 扇子是如此做, 合當如此用, 此便是形而上之理.『朱子語類』62:72)

→ 주희는 부채의 이(理)를 바람을 불어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것, 의자의 이(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결국 이(理)가 통일과 조화의 원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이 점에서 그의 이(理)는 플라톤의 형상과 구별되는 것이다. 플라톤에서의 형상은 기본적으로 그 사물을 사물이게 만들어주는 동일성의 원리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2) 왕수인, 주희의 우주론을 공격하고 맹자의 내면적 형이상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다.

◇ 증이 물었다: "인의예지라는 명칭은 마음이 이미 드러날 때 있는 것입니까?"
왕수인이 대답했다: "그렇다."
다음날 증이 물었다: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은 본성이 드러난 덕입니까?"

왕수인이 대답했다: "인의예지는 드러난 덕이고 본성은 하나일 뿐이다. (…) 마음이 드러날 때 아버지와 조우하면 효라고 하고, 군주와 조우하면 충이라고 한다. 이로부터 명칭들은 무궁하게 전개되지만 단지 하나의 본성일 뿐이다. 이것은 비록 사람은 한 명이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들이라고,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로부터 그 명칭들은 무궁하게 전개되지만 단지 한 사람일 뿐이다. 사람은 단지 본성 차원에서 공부 해야 한다. 하나의 본성이라는 글자를 분명하게 직관하면, 만 가지 이치가 분명해진다."
(澄問: 仁義禮智之名, 因已發而有. 曰: 然. 他日澄曰: 惻隱羞惡辭讓是非, 是性之表德邪? 曰: 仁義禮智也是表德, 性一而已. (…) 心之發也, 遇父便謂之孝, 遇君便謂之忠. 自此以往, 名至於無窮, 只一性而已. 猶人一而已, 對父謂之子, 對子謂之父. 自此以往, 至於無窮, 只一人而已. 人只要在性上用功. 看得一性字分明, 卽萬理燦然.『전습록(傳習錄)』38)

→ 왕수인(王守仁, 1472-1529)은 주희의 월인천강의 형이상학을 거부하고, 맹자가 이야기했던 본성의 형이상학으로 회귀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만이 아니라 충과 효와 같은 모든 윤리적 마음도 본성이 실현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주희의 형이상학은 보통 성즉리(性卽理)라고 이해된다. 이것은 내 마음의 본성과 사물의 이(理), 그리고 이 양자를 초월해서 존재하고 있는 이(理)=태극(太極)이 모두 같다는 논의이다. 그래서 주희는 외부 사물의 이(理)를 연구하는 공부, 즉 격물치지의 공부로도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 반면 왕수인의 논의는 심즉리(心卽理)로 이해되는데, 이것은 마음, 정확히 말해서 본성이 모든 윤리적 이(理), 즉 윤리적 법칙의 근거라는 것을 강조하는 논의이다. 결국 왕수인에게 있어서 주희가 강조했던 의자나 부채의 이(理)란 윤리적 차원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유 되고 있다. 따라서 왕수인은 외부 사물의 이(理)를 공부하는 주희의 공부가 성인이 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이다.